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이미지 출처

- 04쪽 Photo by Ehimetalor Akhere Unuabona on Unsplash
- 11쪽 Photo by Tim Mossholder on Unsplash
- 58쪽 Photo by Gleb Albovsky on Unsplash
- 78쪽 Photo by Bonnie Kittle on Unsplash
- 표지 Photo by Ehimetalor Akhere Unuabona on Unsplash



목 차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와 함께_김평원	08
우크라이나에 평화를_카테리나	12
우크라이나 전쟁 경과_최광순	23
왜 이리 급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나게 하셨을까?_최광순	48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크라이나로 다시!_홍재현	51
우크라이나 역사_전은표	59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제목	76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주시도록
또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리콧 기차역으로 몰려든 피난 행렬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였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유럽 연합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군사 작전을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키예프 근처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항과 주요 군사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하였다. 이번 공격은 인구 140만 명의 도시이자 우크라이나 북동쪽의 하르키우 인근과 동쪽의 루간스크 인근, 북쪽의 접경 국가 벨라루스와 그리고 남쪽의 크림반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우크라이나 전역 동·남·북 3면에서 공격하여 병원, 유치원 학교 등 민간인 시설까지 파괴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식료품과 물 등이 매우 부족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대 40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3월 7일, 두 나라는 세 번째 평화 회담을 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러시아가 속히 전쟁을 중지하고, 두 나라가 평화 회담을 통해 빠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각국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3월) 중에서>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글. 김평원 선교사(우크라이나 한인선교회 전쟁위원회 위원장)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난 3주 동안에 걸쳐 반 인륜적이고 국제법에서 금지한 전범행위 및 잔악 행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발사한 600여 개 이상의 미사일 폭탄은 우크라이나 국토를 초토화했다. 민간인을 향한 살상행위는 3000여 명을 넘어섰고 아동살해도 12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져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현재 국경을 넘어 피란한 피란민들만 300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러시아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전쟁 난민이 최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는 부지기수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평범한 시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은 끝없이 드넓은 평원과 드높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순한 양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이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또

한, 그들은 복음 및 개신교에 대하여 가장 열려 있는 민족이기도 하다. 이 땅은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수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중이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핍박당하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에게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고, 40여 명의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새로운 사역지가 되어 주었다.

이들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1994년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 각서에 서명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 그런 러시아로부터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을 유린당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나토 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구실삼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들은 민간인 거주 지역 및 병원, 유치원, 그리고 기본 인프라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핵무기 운운하며 서방의 자유 민주 진영과 인류의 안전을 겁박하는 중이다. 세계는 지금 구소련 공산주의의 잔재를 포기하지 않은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악마적인 어두움의 세력과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한 빛의 세력 간의 가치 전쟁으로 변화 승화되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죽음의 계곡에서 결사 항전하며 호소 중이다. 우리 역시 그곳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며 연대해 어두움의 세력을 함께 대적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와 사랑의 견고한 끈으로 함께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신앙적, 경제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 국가로 여긴다. 고난과 통곡이 가득한 바로 이때, 우리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이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좋은 친구로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유럽과 구공산권 복음화, 그리고 중동권 복음화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인류를 모독하며 인류의 양심과 정의를 시험하는 이 악한 전쟁행위가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손 잡고 나가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글. 카테리나

(아래 글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경희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카테리나의 우크라이나 원고를 한글로 옮긴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새벽 5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여 우리 국민과 벌써 보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한국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전쟁은 2주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8년 전에 시작한 것이라는 점이다. 2014년도에 러시아는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 국민이 친러시아적인 정치를 따르기를 꺼리는 것에 대응하여 돈바스(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지역에 불법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보내어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한다”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침공을 변명했는데, 이번에 일으킨 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구출 작전'이라면서 'NATO 기지와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러시아 국민에게는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신나치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러시아 시민들이 그 말을 믿

Наверное я скажу вам то, что вы и так уже знаете - в моей стране идет война.

24го февраля в 5 утра Россия подло вторглась в Украину и уже как 15 дней ведет войну против наших граждан. А что вы возможно не знаете, это то, что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ачалась еще 8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все та же Россия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шатким положением наш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у и незаконно аннексировала Крым; когда в ответ на нежелание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следовать про-российскому курсу, Россия ввела боеви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онбасса и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ла непризнанные республики.

Последние 8 лет агрессии Росс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Украине проходили под лозунгом «защиты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эта война не исключение. Они

고 이 전쟁을 시작한 폭군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러시아 군대가 우리 땅에 가져온 공포를 볼 수 있다. 키이우, 하르키우, 미콜라이우, 보즈네센스크, 체르니히우, 헤르손, 고스토멜, 수미, 옥티르카 등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많은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지금 폐허로 변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시민들은 이제는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마리우폴은 벌써 9일째 봉쇄 상태에 빠져 있다. 러시아군들이 인도주의적 피난길을 막고 있어 민간인의 대피가 막힌 상황이다. 그리고 며칠 전 마리우폴 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폭격 사건을 통해 러시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구출 작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러 왔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왔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생명 바쳐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국민 남녀 모두가 자원 입대하여 가장 치열한 곳에서 싸우며 목숨 바쳐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고 있다.

называют это «спаси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ей»,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атакуют лишь «базы нато и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своему населению, что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неонацисты, а мы нуждаемся в спасении и, что самое ужасное,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в это верят 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своего тирана в этом кровопролитии.

Вы каждый день видите в новостях тот ужас, который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принесли на наши земли. Киев, Харьков, Николаев, Вознесенск, Чернигов, Херсон, Гостомель, Суми, Охтырк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цветущие города, красивые города где улицы кипели жизнью,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руины, где люди прячутся в бомбоубежищах и молятся за жизни с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Мариуполь, абсолютно русскоязычный город, находится в блокаде уже 9й день и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нагло врут и спекулируют зеленым коридором, не давая мирным жителям эвакуироваться. Женщины и дети уже которых день сидят без еды и воды и каждый час сейчас идет не на жизнь, а на смерть. Вчерашняя воздушная атака на роддом в Мариуполе лишь в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 필자의 오빠를 비롯해 친척들 모두 자원입대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필자의 친한 친구는 전쟁에서 숨졌다. 친척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국민들 모두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꼭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진실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점령지에서 총살 위협 속에서도 우리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위협 속에서도 거리에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국외 거주자들도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조직하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필자 또한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진실을 전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중이다. 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한국 국민의 도움과 성원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것이다.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Россия изначально не собиралась никого спасать. Они пришли убивать нас. Они пришли сломать нас и нашу волю. Они пришли уничтожить Украину с лица земли.

Уже более двух недель моя страна героически держит оборону и выгоняет этих зверей с наших земель. Наши парни и девушки героически примыкают к армии и ведут бои в самых горячих точках защищая наше будущее ценной своих жизней. Мой близкий друг был убит в плену,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ушел на фронт, отчим вступил в тероборону, а младший брат в волонтеры. Мои родственники, мои друзья и близкие, граждане моей страны – это горе коснулось всех нас, но мы никогда и ни за что не сдадимся. Мы победим, ведь правда – на нашей стороне. Мирные жители выходят на массовые протесты даже в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даже под угрозой расстрела. Украинские экспаты по всему миру организуют поставки гуманитарной и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помогают освещать события. И я в том числе.

현재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1. 현재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우리 군인들을 돕기 위해 보낼 군용/비군용 장비를 모집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긴급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군사 장비: 방편 고글, 청력 보호용 전술 헤드셋, 전술 장갑, 체스트리그, 열화상 투시경, 체온 측정 카메라, 고광량 손전등 및 헤드램프
- 통신 장비: 워키토키, 군용 무전기, 지원 위성 단말기
- 비군사 장비: 발전기, 군용 롤 매트/ 군용 슬리핑, 패드, 침낭, 실온 보관 식품
- 의료 기기: 약(지혈제, 항바이러스제, 소염제, 해열제, 진통제(알약 및 앰플 주사제)), 전투 붕대, 주사기 5-10ml, 수액 세트, 군용 응급 처치 키트(IFAK)

위에 언급한 모든 물품은 근무 시간에 언제든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받고 있다.

Пускай будучи в Корее, я не могу сделать многое, но я могу делать то, что лишь в моих силах – говорить правду. Ведь слово – самое сильное оружие в нашем мире.

Мирные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сейчас с искренней мольбой о помощи. Вы сами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ете, что такое бороться за свою свободу, за право жить в мирной своб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е. Наша страна переживает ужасное время, и остро нуждается в помощи. Ваша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а нам как никогда. И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всегда будем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э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сольство Украины в Корее ведет активный сбор военного и нево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тправки в помощь нашим военным. Мы остро нуждаемся в следующих позициях: .

Все эти вещи вы можете принести в посольство Украины в Корею в рабочие дни.

2. 또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 침범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화 특별 계좌를 개설했다: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 우크라이나 대사관)

3. 우리 군인들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NBU 공식 계좌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 이 방법에 모든 관련 정보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NBU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제발, 침묵하지 말아 달라. 세계가 침묵하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잔혹 행위와 폭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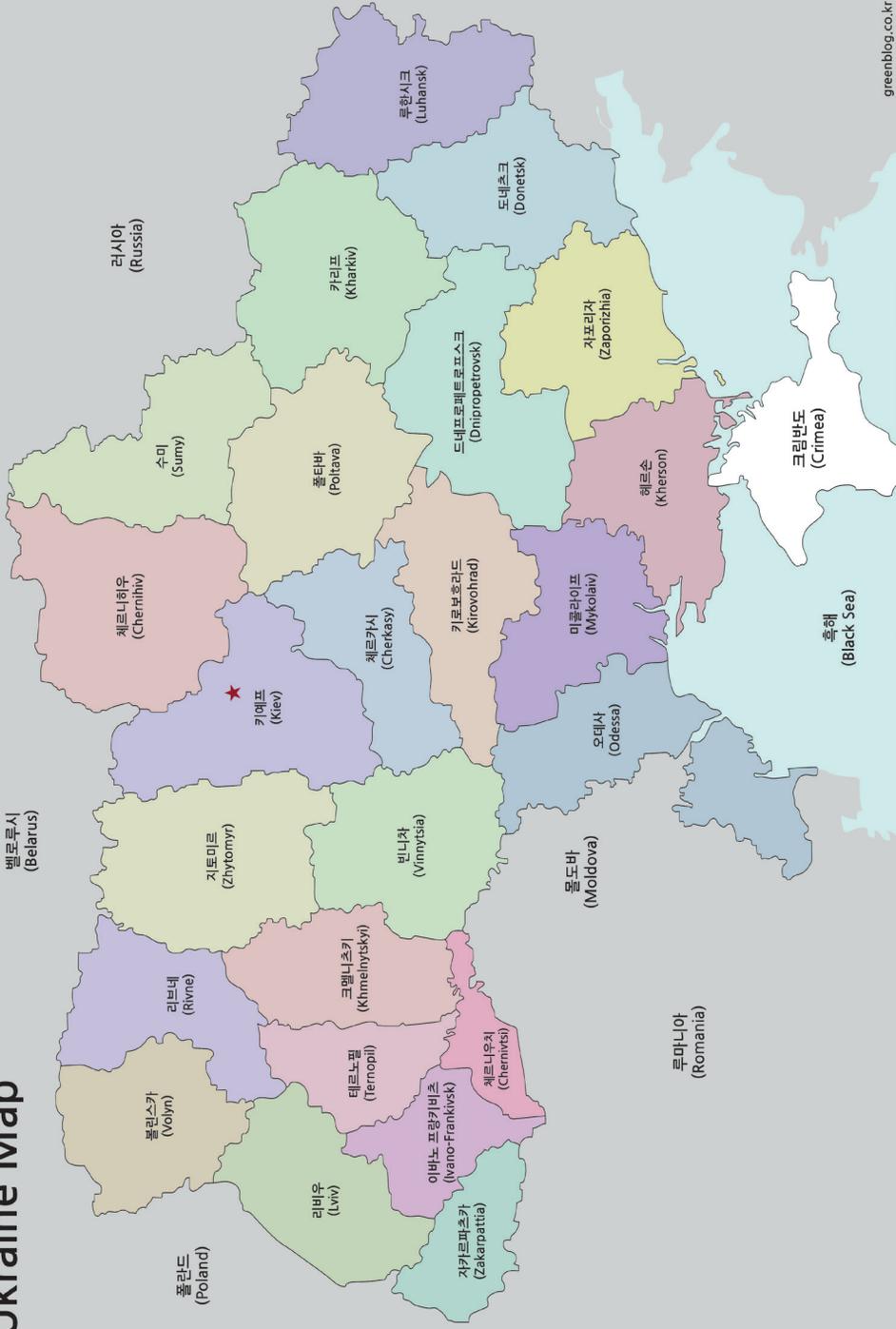
진실을 알리는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Мы так же ведем активный сбор средств дл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нашим гражданам. Счет для пожертвований: хана 174-910024-87105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ддержать наших бойцов напрямую, то вы можете осуществить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а официальный счет ЗСУ -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ц банка украины.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жалуйста, освещайте эти события! Не дайте миру замолчать – мир должен знать о зверствах и насилии, которые Россия совершает в Украине. Мы сильны пока силен наш голос. Мы боремся и будем бороться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Украина – свободная, независим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страна. Слава Украине!

Ukraine Map



우크라이나 전쟁 경과 (3월 6일 현재)

정리. 최광순 선교사(계신)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단합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국경의 루한스크와 수미,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지토미르 등 지역에 공격을 단행하였다. 남부 마리우폴과 오데사에도 러시아군의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만 특수 군사 작전을 전개한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침공 첫날 키예프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가 엄청난 저항을 했다.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전 시설 통제권을 장악했다.

2월 26일

해외에서 귀국한 지원병을 포함해 수천 명의 예비군이 자원군으로 등록했고, 수도에만 1만 8천 명에게 소총을 배포하였다. 해병대 공병 비탈리 샤쿰 볼로디미로비치(25세)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다리 폭파를 위해 자폭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리를 폭파, 러시아군의 진격을 3일간 저지하여 헤르손 지역을 구했다.

2월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헤르손과 베르디야nsk를 완전히 봉쇄하고, 하르키우에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폭파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핵폐기물 저장소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강렬히 저항, 키예프를 지켜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징집병과 예비군을 소집해 러시아군에 전력으로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용기 14대, 헬기 8대, 전차 102대, 중기관총 14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크 1대를 격파하였다. 그 결과 35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고, 200명이 인질로 체포되었다. 352명 이상의 민간인(어린이 14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684명(어린이 116명)이 발생했다.





2월 28일

EU 가입 신청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회 의장이 사인하였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32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3월 1일

시아는 쥐또미르, 포로잔카를 포격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여 공원에 버렸다. 시신 온몸에는 총 자국이 나 있으며, 머리가 없고, 팔다리를 잘라서 유기했으며, 시신은 나무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러시아는 공장들을 모두 폭파하였다.

하르키우 주거 지역과 주정부 청사 등이 러시아군 포격을 받아 최소 18명이 숨지고, 키이우에서도 도시 서북쪽 TV 방송 타워가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지고 인근 시설이 파괴되었다.

주민들이 체르니기브스까 주 러시아 군사 차량 및 탱크를 막고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러시아군 일부가 사기 저하와 연료 및 식량 부족에 시달리면서 전투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항복하고 있다. 슈퍼마켓에서는 물, 파스타, 초콜릿, 햄 등 비상식량들을 팔고 있지만, 빵은 이미 동난 상황이다.

3월 2일

러시아는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차량 행렬(장갑차, 탱크, 대포, 지원 차량)이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진군을 멈추었고, 러시아 병사들이 먹을 음식까지 동나기 시작했다. 64km에 이르는 차량 행렬이 키이우 도심에 27km 정도까지 접근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어머니들에게 전장에서 포로로 붙잡힌 아들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며, 이들을 데려갈 것을 촉구하였다. 6일 동안 약 6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498명의 러시아군과 287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 포로에게 차와 음식을 주고,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해주는 우크라이나 시민

3월 3일

러아군 손실 상황 : 항공기-30, 헬리콥터-31, 탱크-217, BBM(장갑 전투 차량)-900, 포병 시스템-90, 방공-11, MLRS(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42, 연료 및 윤활유 탱크(연료 및 윤활유)-60, UAV 작전 전술 수준-3, 보트-2, 자동차 장비-374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부군 사령부 제41 연합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수호베츠키 소장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사망하였다(2월 말,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가 10여 명의 적군을 사살).

3월 4일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포격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붙었고, 이는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1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자포리자에 6기가 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투하되면 모체가 공중에서 파괴되면서 작은 폭탄 수백 개가 표

적 주변에 흠뻑러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무기로, 2010년 8월 오슬로 조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금지된 무기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보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면, ‘특수 군사 작전’이라 표현해야 하고 ‘전쟁’, 또는 ‘침략’이라고 보도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허위 유포로 징역 3년 혹은 벌금형, 최대 15년형을 처벌받는다.

3월 5일

우크라이나 남성 6만 6224명이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귀국하였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 외곽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민간인들 대피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중단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경제 제재는 선전 포고와 비슷하다”, 그는 “우선해야 할 일은 군사 인프라 제거였다”며, “주로 무기고와 탄약고, 군용기, 방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파괴했다. 사실상 이 작업은 거의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 인근의 군사 기지를 장악했다.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한 각국의 지원

2월 25일

포르투갈이 175명의 포병을 포함한 보병 중대를 파병하였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에 동참하였다(특히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업체들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6일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은 3억 5천만 달러(약 4천 192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워팀' 행보를 하고 있다. 독일은 1000개의 대전차 무기와 500개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하고, 네덜란드가 400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여 이미 5천 개의 헬멧을 전달하였다. 체코도 850만 달러(약 102억 원)의 무기(기관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탄약 등)를 보내기로 했고, 이미 4천 발의 포탄을 지원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을 체코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합의하고, 나토의 동쪽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 무기 방어 전문가를 포함해 580명의 군인을 파병하였다. 영국은 이미 2천 기의 대전차 미사일

을 제공했고,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해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자동차를 실은 화물선을 해협에서 나포하였고,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크로아티아 자원자들이 도착하였고, 그들은 1650만 유로(약 221억 원)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였다.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였다.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를 마비시키고, 데이터베이스(DB)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소셜미디어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27일

스웨덴은 전투 식량과 장갑차, 대전차 로켓 등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처음이다.

2월 28일

핀란드도 돌격 소총 2500정, 총알 15만 발, 대전차용 무기 1000대 등을 보낼 예정이다. 조지아와 벨라루스 출신들은 외국 군단에서 싸우고 싶어한다.

3월 1일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 무장관을 포함해 EU의 제재 명단에 오른 367명 전원의 자산을 즉시 동결하였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자산은 104억 스위스 프랑(약 13조 5306억 원)에 달한다. 일본인이 약 70명이 의용군에 지원하였다. 독일의 다임러트럭은 카마와의 협력 관계를 전면 동결했고, 폭스바겐은 러시아 현지 대리점으로서의 차량 인도를 중지하였다.

3월 3일

미국 기업인 Alexander Konanykhin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구금이나 살해한 러시아 장교들에게 1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월 4일

대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약 40만 명의 국제 해커가 자원하였다(IT 군대).

3월 5일

리투아니아(벨라루스 국경)에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병력이 증파되었다(3,000~4,000명). 3,000명의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 국제 대대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3월 6일

우크라이나가 IMF에 14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폴란드의 러시아산 전투기(우크라이나군에 익숙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폴란드 전력 공백을 미국이 메워주기로 하였다(F-16).

전쟁 난민

우크라이나 피난민 상황 3.03 2022 통계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ukraine>

Location name	Data date	Population	
Poland	3 Mar 2022	53.7%	649,903
Hungary	3 Mar 2022	12.0%	144,738
Other European countries	3 Mar 2022	9.2%	110,876
Republic of Moldova	3 Mar 2022	8.5%	103,254
Slovakia	3 Mar 2022	7.5%	90,329
Romania	3 Mar 2022	4.7%	57,192
Russian Federation	3 Mar 2022	4.4%	53,300
Belarus	3 Mar 2022	0.0%	384



2월 26일

폴란드에만 10만 명의 피란민이 있고,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도 도착한 상태이다.

2월 28일

EU 27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해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 최대 3년간 난민으로 수용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3월 1일

폴란드 국경에 이미 40만 명가량이 입국하였다.

3월 5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2월 24일 이후 피란민이 120만 9976명으로 집계하였다. 8월까지 피란민 예상했을 때, 약 4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어른들은 싸우러 가고 아이들만 피난처에 도착했다





공습을 피해 지하실에 있는 키예프 어린이들



폭격을 피해 욕조에서 쉬고 있는 아버지와 아기



우크라이나 도시 헤르손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다리아와 그의 딸 소피아(한국 국적)가 도시를 포위한 러시아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

세계의 반응

2월 27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등 약 200명은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분수대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였다.

우크라이나 국적 올렉산드로 진첸코가 소속된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시티는 에버튼전에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완장을 차고 경기를 함으로써 진체코를 응원하기도 했다.

3월 1일

FIFA는 러시아 국가 대표와 클럽 팀의 FI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를 발표했다. UEFA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3월 2일

아브라모비치(푸틴 측근) 첼시 구단주는 첼시 매각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일

영국 러시아대사관 앞과 트리팔가 광장에서 규탄 대회가 열렸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패럴림픽 참가를 불허하였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0년째 후원하던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와 계약 철회 선언을 했고, 독일의 샬케04도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과 계약 해지를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국가 대표 수비수로 활동 중인 빅토르 코르니엔코(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조국을 지키러 떠났다.

3월 5일

우크라이나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더해 총 7개의 메달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조국에 바치는 메달”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참고: 최종 패럴림픽의 결과 우크라이나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종합순위를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계 랭키 140위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 다야나 야스트렘스카는 러시아 침공 일주일 전 보트를 타고 탈출하여 극적으로 참가한 여자 프로테니스(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스오픈 단식에서 4강에 진출하기도 기염을 토하였다. (경기 최종 결과 그녀는 리옹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상금 전액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였다.)

친러 세력 중국의 반응

2월 26일

중국은 푸틴의 (군사) 행동이 아주 상쾌하다고 받아들이고, 이번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자신들도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을 완전히 수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월 5일

중국 TV 중계권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로 한 EPL 경기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FIFA와 UEFA를 비난하며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3월 6일

중국 왕이 부장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름을 부어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의 결의안 표결에 기권함으로써 러시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의 입장

3월 2일

키이우(키예프)에서 철수한 한국 대사관은 루마니아 접경인 체르니우치로 옮겨와 업무를 개시하였다. 필자가 이동 상황 시 본 풍경은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고, 무장 군인들과 자경 단원들이 검문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문을 연 곳에는 백여 대 차량이 줄을 서 있고, 한 번에 10-20리터씩만 판매하고 있다. 필자의 가족은 안전지대로 나온 후 대사관 행렬과 헤어져 18시간 이상 운전하여 570Km를 이동했다.

3월 3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교민은 26명이 잔류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여,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월 4일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소총 수만 정 원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으며, 그 대신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왜 이리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글. 최광순 선교사(계신)

하나님은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를 떠나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현지의 사역자와 제자들만 남겨둔 상황에서, 왜 이리 급하게 모든 나라의 사역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만 했을까?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일본 총독 부는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 참배 거부 사건을 계기로,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폐교하게 만드는 강경책을 썼다. 그러자 기독교계 안에서 의견이 분열되었고, 1937년부터 기독교계 학교의 일부는 폐교하고, 일부는 순응하는 일이 발생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 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의 신사 참배 문제가 일제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어가자,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일본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 일반 신도들의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1938년 신사 참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이때 선교사들은 무슨 마음으로 한국 땅을 떠났을까? 한국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기독교 역사가 끊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조선 땅을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 시점부터 한국 교회는 각성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일어섰고, 교회는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 후 30년의 역사 동안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필자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현지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였다.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전세기를 타고 나라를 떠나갔다. 하지만 남아 있

는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안정되면, 새로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믿음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자라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이다. 더불어 사역지를 두고 떠나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선교사와 한국으로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이들은 생활 터전에 모든 것을 두고 간단히 옷가지만 챙기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지원과 후원도 끊어진 선교사들이 많다. 현지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인 사역자들에게 임금, 사역비, 월세 등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건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밀려오는 이자와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계시고, 우크라이나 내로 음식을 구입해 보내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

많은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전쟁을 두려워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거리로 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뺏어주신 우크라이나로 다시!

글. 홍재현 선교사(PCK)

“저는 이제 하나님이 뺏어주신 우크라이나로 다시 시집을 갑니다. 저를 후원해주시는 친정 교회 권사님들이 친정어머니로 잘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필자의 파송 예배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새 땅과의 결혼식과 같았다. 그렇게 해서 2004년 6월, 다섯 살과 세 살이 된 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처음 왔다. 현지 언어가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현지 적응해야 한다고 유치원에 데려다주었다.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 마당에 모여 반별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중 검은 머리카락 두 명은 필자의 딸들이었다. 아이들이 노란 머리카락으로 염색해 달라고 했을 때도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어했는지 엄마인 필자는 미처 몰랐다. 막내아들이 유치원 반에 들어가자마자 벽 구석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현지 유치원에 다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필자는 딸, 딸, 딸,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이들과 여성을 위하는 나라인데, 아시아인이 드문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많았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시선을 너무 싫어했다. 왜냐하면 중국인이라고 놀려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하러 현지 어린이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안과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다 뜨지 않았다고 수술해야 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우리는 그날 의사에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아시아인은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아시아 아기를 본 적이 없는 의사에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처럼 필자가 살아온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땅의 역사와 계절, 기후에 따라 다른 점이 많다.

우크라이나에서 필자는 교회와 신학교, 개척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생명의길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현지인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코로나로 거리 두기와 어르신들의 왕래가 어려워져서 현재는 5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은혜와진리’ 신학교는 작년에 2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졸업생을 600여 명이나 배출했다. 우리는 신학교의 학생 한 명이 교회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졸업하고 사명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CIS

15개국의 복음화와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신학교에서는 복음의 전사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으며, 졸업한 학생들이 시작하는 개척 교회를 돕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가 많은 학생에게 인기 있는 언어가 되었고,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크리스천을 위한 한국어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알려 있지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이 알려 있지 않은 나라이다. 그래도 이번 전쟁으로 많은 사람에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6배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밀과 감자가 맛있는 나라이고, 한국 처럼 많은 침략을 받아 아픔도 있지만, 정도 많은 나라이다.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필자는 외교법에 의해 교회와 신학교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게 되었다. 한 달 후쯤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옷 몇 벌과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책 몇 권만 가지고 주변국인 불가리아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곳에 온 지 벌써 4주가 지났다. 아침이 되면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휴대 전화 알림이 가득찬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교인

들, 그리고 학생들과 연락하며 소식을 듣고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서쪽에서 독일에 도착했다는 교인 소식도 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만 국경을 넘고 남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편 전쟁이 무섭지만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다는 학생들도 있다. 음식이 없어 하루한 끼만 먹는다는 학생의 소식도 들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수도 키예프의 북쪽 오블론에 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건물 지하실이나 지하철 방공호로 대피한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길교회를 교인들에게 피난처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뿐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 대략 40여 명 정도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생활하는 중이다. 그들은 모아둔 식료품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함께할 수 없는 필자를 위로하였다. 이들이 먹을 식료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 있기에 필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가 속해 있는 현지 교단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다.

건물과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 그중에서도 2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폭격을 당하였다. 병원도 많이 파괴되고 물자도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지 교단을 통해 돕는 것 외에 전쟁이 끝난 후 현장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에브게니 목사는 여덟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침례교 목사로, 루비에즈나에서 사역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침공 이후, 2017년부터 군중 목사로 전방을 오가면서 말씀과 세례를 주고 기도로 섬기고 있다. 현재 루비에즈나는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역사

정리. 전은표 선교사(카이로스 동원디렉터)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위성 국가들이 독립하였을 때,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재등장에 놀라워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19세기 후반 통일된 이래,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유럽에서 처음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기준으로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였고,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나라였다. 서유럽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한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즉 우크라이나 역사를 독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를 같은 동슬라브족으로 묶고, 이를 다시 러시아와 동일시하여 해석해 왔다.

키이우 대공국(키이우는 우크라이나식 명칭이며, 키예프는 러시아식 명칭)은 882년 수도를 노브고로드에서 키이우로 옮기면서 형성된 동슬라브 민족의 최초의 나라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뿌리가 되었다. 그런데 몽골의 침략으로 키이우가 함락되고, 동슬라브인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가자, 키이우 대공국의 전통성까지 모스크바와 러시아가 가져갔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독립성을 잃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강대국 러시아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로 알려진 니콜라이 고골(우크라이나 이름은 미콜라 호홀)도 사실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다. 그를 세상에 소개한 <디카니카 근교 농촌 야화> 역시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서민들의 생활을 취재해서 쓴 소설이었다. 고골은 평생 철학과 문학, 역사에 관심을 두었는데, 자신의 출신과 민족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개략적인 역사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원전/기원후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살았던 최초의 기록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 등장한 민족은 킴메르인이었다. 그 후 스키타이인이 등장하여(기원전 7세기) 우크라이나 전역에 살게 되었다. 스키타이인은 이란계 유라시아 유목민으로, 중부 유라시아 스텝 전반에 걸쳐서 거주하였다. 특히,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서부 스키타이인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로인 비단길을 만들어, 이 지역 문명 번영에 이

바지하였다(기원전 4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그리스 아테네에 수출하였는데, 아테네 수입 곡물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기원전 2세기에는 사르마타인(스키타이인과 동일한 이란계 민족)이 등장하여 스키타이인을 몰아내고, 기원후 3세기까지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7세기 중반까지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불가르족이 잇달아 이 지역을 지배하였으나, 특별한 자취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2. 루스 카간국

루스 카간국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까지 성립된 루스 민족 최초의 국가로, 류리크 왕조와 키이우 대공국의 전신이었다. 이 시기의 루스 민족은 자신들만의 민족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지만, 루스 카간국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민족의 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으로 ‘카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카간’은 몽골이나 투르크계 유목민이 주로 사용하던 군주 칭호로, 이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기 전부터 이들에게 영향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키이우 대공국(키예프 루스)

작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키이우 대공국'에서 기원한 같은 민족이며, 역사와 언어, 종교 등이 연결된 하나의 나라이므로 서로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이며, 민족적 재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푸틴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키이우 대공국의 성립과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키이우 대공국은 루스 카간국의 마지막 카간이자 류리크 왕조의 시조인 류리크의 후계자 올레그 베시가 노브고로드에서 드니프로강 근처의 키이우로 수도를 옮기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수도를 옮긴 이후, 주변의 동슬라브 민족들을 정복하였고, 동로마 제국에 대한 원정을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912년 올레그 베시가 사망하자 류리크의 아들인 이고리 류리코비치가 키예프 대공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올레그 베시의 동로마 제국 원정 정책을 이어받아 동로마 원정에 참여하였는데, 동로마와의 평화 협정 이후 돌아오는 길에 세금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945년에 살해되었다. 이때, 이고리 류리코비치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내인 올가가 아들을 대신하여 키예프 대공국을 섭정 통치하였다. 그녀는 957년에 정교회로 개종하여 루스 지역의 첫 번째 정교회 신자가 되었다.

이후, 키이우 대공국은 국경 지대에 있던 동슬라브족과 발트족, 핀족 등의 여러 부족을 정벌하며 성장하였다. 블라디미르 1세 때인 989년에는 정교회가 키이우 대공국의 정식 국교가 되었다. 키이우 대공국은 현공이라고 불리는 야로슬라프 1세(1016년~1054년) 때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는 키이우 대공국의 국력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크게 향상시켰다. 북쪽, 발트해의 이민족을 정복하고, 폴란드가 다스리던 할리치아를 탈환하였다. 또한 관습법을 정리해서 성문 법전을 만들고, 대규모 정교회 성당을 건축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흥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1095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역의 중심이 불가강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넘어갔고, 키이우 대공국도 이에 따라 쇠퇴하며, 여러 작은 공국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1240년 킵차크 칸국의 침공으로 수도 키이우가 함락되면서 키이우 대공국은 멸망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는 할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이 키이우 대공국을 이어 설립되었으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러시아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땅이 되었고, 키이우 대공국의 공국이었던 모스크바 공국은 살아남아 러시아 제국으로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이우 대공국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당시 모스크바 공국은 키이우 대공국의 주류와는 민족도 언어도 다르고, 16세기가 되어서야 슬라브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모스크바는 키이우 대공국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키이우 대공국이 다스리는 비슬라브 민족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키이우 대공국에 이어 세워진 할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이 비록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그들이 키이우 대공국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이어갔다고 보았다. 이러한 키이우 대공국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에 따라 러시아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푸틴은 자신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피 흘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4.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합쳐진 복합 군주제 국가로,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지닌 국가 중 하나였다. 이 연방은 할리치아와 볼히니아 두 공국의 멸망 이후, 17세기 중반 코자크가 나타나기 전까지, 300년간 우크라이나의 중심 세력이었다. 비록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인에 의한 중심 세력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인만의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중 리투아니아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들어왔다. 그런데 승전국 로

마가 패전국 마케도니아 왕국의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승전국인 원나라 안에서 고려 문화가 퍼져나간 것처럼,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였으나 정작 리투아니아 안에서는 슬라브 문화가 퍼져나갔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는 처음에는 이교도였으나 나중에는 귀족들이 정교회를 받아들였고, 당시 우크라이나의 언어였던 루스 언어까지 받아들여 리투아니아의 공용어가 되었다.

리투아니아 다음으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폴란드의 영향은 지금도 남아있다. 할리치나 지방(현, 우크라이나 서부)의 경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 흡수되기 전까지 폴란드 지배 아래에 있었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는 정교회 대신 가톨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포교에 애를 썼고, 우크라이나 귀족들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가톨릭교회를 선택하였다.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한다. 세계 유대인 대회는 우크라이나 유대인 공동체를 유럽에서는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 번째로 큰 공동체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게 된 시기가 바로 폴란드 통치 시절이었다. 11세기 십자군 운동 때부터 집단적 박해를 받아온 서유럽의 유대인들은 14세기에 흑사병까지 서유럽에 유행하자 동

유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이들을 받아준 곳이 폴란드였다. 폴란드 왕실과 귀족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 있는 넓은 영지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상업 경험이 풍부한 유대인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해에 따라 유대인들은 폴란드가 16세기에 병합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남동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이 유대계 우크라이나인 중의 한 사람이다. 이는 폴란드 지배 시기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5. 코자크

코자크는 드니프로강 중하류 도시들을 거점으로 한 자치 무장 집단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시대에 귀족들의 억압에 못 이긴 농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콘스탄티노플과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폴란드는 이들을 타타르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이용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독립적인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폴란드 귀족의 강압적인 개종 요구와 생활 착취가 심해지자, 코자크의 헤트만(지도자)인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 다양한 국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개입하면서 국제전 성격으로 격해졌으며, 폴란드 군대가 반격에 나서자 흐멜니츠키는 러시아에 지원

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호멜니츠키 반란의 결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드니프로강 서쪽으로 밀어냈지만, 키이우 지역은 러시아에 넘겨지게 되었다.

전쟁 이후 비옥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잃은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점점 약소국이 되었고, 러시아는 코자크를 러시아 제국 팽창에 이용하였다. 러시아는 코자크 공동체를 도시 건설 노동자로 활용하는 한편, 시베리아 영토 확장에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코자크는 비록 무장 집단이었으나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므로 농노제의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와 종교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6.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폴란드가 몰려간 이후, 18세기 말부터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 80%는 러시아 제국(동부)이, 20%는 오스트리아 제국(서부)이 통치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통치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는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어 러시아 제국 안에서도 제일 큰 공업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는 병합된 지역의 민족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압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대부분이 서부 지역으로 탈출하였으나, 러시아 제국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멸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코스토마로프(1814~1870) 같은 역사학자는 시베리아에 유배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주장을 지켜냈다. 186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농노제가 폐지되었지만, 우크라이나 농부는 러시아 농부보다 상당히 높은 토지세를 물게 된 것이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각 가정의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하였고, 높은 토지세를 감당하기 위하여 각 가정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최고 미덕으로 여겼다. 결국,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서부 지역은 서부 유럽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제국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 언어로 된 민속 문학을 수집하고 발간함으로써 민족주의의 근간을 만들어 냈다. 비록 동부에 비해 서부는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다. 토지는 척박했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바로 이 할리치아 지역(우크라이나 서부)이었다.

7.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

우크라이나인에게 1차 세계 대전(1914-1918)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잔인하였다. 동부 우크라이나는 연합국(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동원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은 패전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배권을 상실하였고, 서부 우크라이나와 동부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20년에 동서 우크라이나의 통일을 선언하였으나, 폴란드와 소련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소멸하였다. 1922년 다시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폴란드에 속해있던 서우크라이나 지역이 소련에 합병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에 우크라이나 국민위원회가 다시 독립을 따냈지만, 이는 명목상의 독립이었을 뿐 소련에 의해 재점령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 2차 세계 대전의 참화를 최일선에서 겪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전까지 독립을 이룩하지 못했다.

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비록 독립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게릴라 활동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서

부 지역에서 계속된 무장 투쟁은 1950년대 초반이 돼서야 끝났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투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련의 유화 정책을 끌어냈다. 유화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1954년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은 러시아가 관리하던 크림 반도를 우정의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 국가 자격으로 유엔에도 가입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순번제 이사국의 지위도 역임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엔 활동은 미국과의 세력 균형에 따른 소련의 전략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공업이 발전하였던 동부 하리코프, 도네츠크, 드네프르페트로프스크 지역은 소련 최대의 중공업 지역이 되었다. 이 중공업 지역의 노동력을 위하여 소련 전역에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인들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크게 세 부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 부류는,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 시대의 이주민으로, 흐루쇼프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이주가 가능하였다. 학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자신이 공부한 도시 혹은 복무한 지역에 남아 정착하는 것이 가능했다. 두 번째 부류는, 80년대 이후 생겨난 계절 농사꾼이다. 이들은 농사철에 중앙아시아에서 비옥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고려인들로, 급작스러운 소련의 붕괴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게 되

었다. 안타까운 일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당수 고려인이 무국적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부류는, 1993년 일어난 타지키스탄 내전을 피하여 들어온 고려인 난민들이다. 다행히 이들에게는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9. 1991년 독립 이후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연방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우크라이나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다.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은 늘 문제가 되었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친서방과 친러 정권이 번갈아가며 집권하였는데, 어떤 정권도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지 못하였다. 2014년에는, 러시아인이 많았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친러반군, 러시아군 사이의 지속적인 전투가 일어났다. 이후, 2019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을 계속 추진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다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록 우크라이나 민족이 독립적인 ‘국가’라는 정치 결사체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행전 17장 26-27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민족이 언제 존재하고,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존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민족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알게 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크라이나 민족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자!

〈참고 문헌〉

구로카와 유지. 안선주 역.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글항아리. 2022

미하일로 흐루셰브스키. 허승철, 한정숙 역. 우크라이나의 역사 1.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2016

박정호. 우크라이나 정치의 이해. 좋은땅. 2012

이고르. 정소중 역. 우크라이나 이야기. 투비북스 2015

정연호. 슬라브 역사 문화 기행. 신아사. 2020

허승철. 우크라이나의 역사. 문예림. 2015

_____. 우크라이나 고려인 문제 해결 과정 분석. 러시아문학연구 논문집 제76집. 2022



ГУ ДСНС УКРАЇНИ
У 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ІЙ
ОБЛАСТІ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 PRAY for UKRAINE

“여러분의 기도 지원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위험으로부터 지나가도록 합니다. 기도로 보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2. 지도자를 위해 -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4. 난민들을 위해 -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소서.
5.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6. 선교사들을 위해 -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피난 중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현재 사역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비전과 협력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7.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며 - 전쟁 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재건을 통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우크라이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물질 후원이 연결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통로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 기아대책

전화: 02-544-9544

▶ 대한적십자사

전화: 1577-8179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초판 1쇄 발행 2022년 3월 21일

만든이 김중현
엮은이 최선희
펴낸곳 한국선교KMQ

교정 전은옥
북디자인 이지은

한국선교KMQ

출판신고 제2017-000025호
홈페이지 <http://kmq.kr>
이메일 kmqdesk@gmail.com
연락처 070-5222-3012

Copyright © by 한국선교KMQ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973435-6-8 05230



9 791974343558
ISBN 979-1-973435-6-8
(PDF)

